

매맞는 아내의 부부체계와 자녀의 병리적 성격개선을 위한 대상중심 가족치료

임종렬(대구대 교수)

I. 서 론

개인이 개인으로만 존재한다면 개인은 존재해야 할 가치가 없다. 개인이 다른 개인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부여하는 역할을 맡았을 때 그 역할과 관련된 개인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개인이 결혼을 하여 부부가 되면 남편 혹은 부인의 호칭을 갖게 되며 갖게 된 호칭대로 기능을 하다보면 아버지 혹은 어머니라고 하는 또 다른 호칭과 역할이 부여된다.

남편과 부인의 관계가 태양과 지구의 관계에 비교될 수 있다면, 자녀의 양육을 도맡아 하는 어머니와 피양육자인 자녀의 관계는 지구와 달의 관계에 비유될 수 있다. 태양계가 하나의 작은 우주로서 큰 우주의 기능의 일부를 수행하듯 가족 또한 하나의 작은 우주(사회)로서 큰 우주(사회)의 특성을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 지구가 태양 가까이 위치하게 되면 여름이 오고 멀리 떨어져 지게 되면 겨울이 오듯이 부부의 정서적 체계 역시 관계의 원근에 따라 가정의 분위기가 변하고 지구의 위치에 따라 달의 모습이 변하듯 어머니의 감정적 상황에 따라 자녀들의 정서와 행동양상이 원만하고(둥글고) 원만하지 못한(일그러진 달 모양)것으로 결정된다.

태양과 지구 그리고 달의 관계가 서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호영향권 안에 있듯이 남편과 부인 그리고 그 부모 밑에서 성장하는 자녀들 또한 그들의 관계속에서 상호영향을 받는다. 남편을 잘 만나야 부인의 삶이 편하듯 부인을 잘 만나야 남편의 삶 또한 편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녀는 부모 특히 양육자인 어머니를 잘 만나야 그들의 성장이 순조롭다.

그러나 관계를 수월히 하는 부모체계에 의해 부부관계가 분열되어 있으면 그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의 가족관계는 상호 용해되어 개체로서의 자율성 획득과 주체성 형성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기능상의 결함을 지니게 된다.

오늘날 매맞는 아내의 실상과 관련하여 자녀들의 일탈행동이 사회의 표면에 부상되고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매맞는 아내의 매맞는 상황을 증재하거나 자녀들의 일탈행동을 해결하여 매를 때리고 맞는 가족성원간의 불미스러운 과행을 근절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차원에서의 관심과 노력은 극히 미소한 편이다. 따라서 매맞는 아내가 혹은 아내를 학대하는 남편들이 그들의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자녀에게 폭행을 자행하는 등의 무서운 학대를 수용하는데 익숙해진 나머지 가정병리 혹은 사회병리를 치유할 수 있는 처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놀라움과 통탄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아내를 때리는 남편과 자식을 때리는 부모의 역동에는 나름대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매맞는 아내와 때리는 남편의 인간관계이다. 매를 때려야 하고 맞아야 하는 근원과 법칙을 바탕으로 아내를 때리는 남편과 자녀를 때리는 부모와의 관계속에서 한 여자가 딸로서 혹은 아내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평가받고 평가된 내용에 의해서 그 가치가 부여되어 왔다고 해도 무리한 해석이 아닐 것이다.

매맞는 아내의 심각성과 매를 때리고 맞는 부부체계의 분열현상 때문에 학대를 받아야 하는 자녀들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우선 관계의 의미를 찾아내야 한다. 호칭과 연계된 관계가 의미하는 관계속의 기대를 파악하지 않고서는 가족병리를 치유하는데 일익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관계적 속성을 이해하기 위해 그동안 필자가 증재해 온 많은 사례들 중 상담가들이 임상현장에서 흔히 접할 수는 있으나 해결책을 강구하기에는 좀 힘이 드는 매맞는 아내의 부부체계와 그들 자녀들의 병리적 성격 특성의 개선을 위한 대상중심 가족치료의 기술적인 면을 제시하고자 했다.

II. 이론적 배경

1. 학대적 부부의 성격특성

배우자를 학대하는 사람의 정신내적 욕구는 학대받는 배우자를 학대하는 것이 아니고 학대하는 사람 그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학대하는 배우자간의 관계를 보면 학대를 받은 배우자는 언젠가는 학대를 한 배우자를 학대를 받은 만큼 학대함으로써 주고받는 관계적 항상성을 유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만일 학대를 하는 사람은 학대만 하고 학대를 받는 사람은 학대를 받기만 한다면 그 관계가 갖는 편중성 때문에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결함을 가지게 된다. 왜냐하면 매를 맞는 피학대자인 부인이 학대하는 남편에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학대받은 만큼의 보복행위를 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다면 그 부인은 그 배우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거나 아니면 학대하는 남편으로 하여금 그 부인을 더 이상 학대해야 할 필요가 없는 남편으로 전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대를 받은 부인은 학대하는 남편을 거부하는 것으로 혹은 가사에 태업하는 것으로 혹은 금전을 낭비하거나 그밖의 일탈행동을 일상화하는 것으로 학대하는 남편에게 보복함으로써 결국 서로 학대하고 학대를 받는 양과 질의 균형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학대의 특성은 학대하는 개인의 일부분이 된 대상과의 관계적 역사를 통해서 내재화된 대상의 이미지와 자기의 이미지에 의한 것이다. 이는 곧 자기가 대상과의 관계에서의 학대적 경험에 의한 좌절과 자기비하적 정동에 의해 창출된 이차적 순환작용으로 인해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학대적 경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부연하면 학대를 받아 본 사람만이 학대를 할 수 있다. 학대를 받아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학대하고 싶은 충동과 학대를 받고 싶은 욕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학대의 주요 원인은 영유아 시절에 영유아의 자아기능을 전담했던 대상의 자아결핍에 의한다. 자기가 필요로 하는 대상의 결핍은 배고픔과 같은 정서적 갈증으로서 공격적인 충동과 욕구를 자아내게 하고 공격적인 욕구와 충동은 대상에게 매달리게 하는 번거로운 상호 부담을 안겨 준다. 대상결핍은 자아의 미완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기자아의 완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충해야 할 잔여자아를 대상에게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가 결과적으로는 대상을 이상화하고 이상화된 대상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기 위해 자기학대적 행동을 자행하는 이득을 취한다.

자기학대적 행위는 도덕자아가 활성화된 것으로서 잔여자아를 양도 받아야 할 대상을 이상화함으로써 앞으로 양도될 잔여자아의 질적 가치를 높이는 행위이기도 하고 반면에 양도 되지 않은 잔여자아를 요구하는 강력한 시위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기가 요구하는 잔여자아의 양도는 자기의 의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대상의 성숙한 정도에 따라 잔여자아의 양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잔여자아의 회수(回收)를 위한 시위는 한낱 결실이 없는 몸부림에 불과하다. 그 까닭은 분열된 대상 자신의 자아 때문에 느끼는 절박한 유기감을 경감하기 위해 담보로 소유하고 있는 자기(자녀)의 자아를 양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상에 의한 자기의 잔여자아 양도는 곧 자기(자녀)의 폐기 혹은 포기를 의미한다. 자기의 잔여자아를 대상이 소유함으로써 느끼는 정동은 안정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36개월 이후의 자기는 대상이 소유한 자기자아의 양도를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도덕방어를 할 뿐이다.

정동의 안정적인 균형은 자기불안의 경감과 관련되고 유기불안의 경감은 관심의 정도에 따라 그 강약이 결정된다. 관심의 정도가 높을 때 유기불안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고 관심의 정도가 낮아지면 다시 유기감이 상승하는 시이소 개입현상을 나타낸다. 자기자아를 소유하고 있는 대상은 자기가 불안해 할 때 상승정동을 타고 자기는 대상의 정동이 격화되어 뜨거운 분노의 열을 토

해낼 때 상승정동을 탄다. 이러한 시이소 게임현상이 계속해서 상호학대적 보완체계를 유지하게 한다.

자기-대상과의 관계에서 시이소 게임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서로 만나 부부가 된다면 그들의 상호관계는 당장에 자기-대상관계에서 경험했던 시이소 게임의 정동무드를 타는 숙명적인 관계에 돌입하게 된다. 한때 학대한 배우자가 다음에는 학대를 받게 되고 반대로 한 때 학대를 받은 배우자가 다음에는 학대를 하게 되는 균형에 맞는 상호학대적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2. 배우자 선택 특성

잔여자아를 양도받지 못한 것 때문에 갖게 된 미성숙한 자아를 소유한 사람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역시 미성숙한 자아를 가진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부부로서 결속되었을 때는 그들의 부모로부터 양도받지 못한 잔여자아의 충족을 위한 요구를 상대방 배우자에게 충족시켜 줄 것을 강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자아의 공급을 강요하는 것에서 비롯된 갈등을 면치 못한다.

이와 같은 사실을 숙지하지 못한 이론가들(Lincoln & Straus¹⁾,1985; Johnson²⁾,1968)의 주장은 폭력을 가하는 남편과 폭력의 대상이 되는 부인의 성격을 이원화하여 폭력의 모든 책임을 폭력을 가하는 사람(일반적으로 남편)에게 부과하는 편협한 결론을 내림으로써 현실성이 없는 이론적 모순을 범하고 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폭행을 가하는 남편이 없으면 폭행을 당하는 부인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폭행을 받고자 하는 부인이 없다면 폭행을 가하는 남편이 없다는 다른 측면의 역동성을 고려해 보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성급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배우자의 학대는 그 학대의 유형이 어떤 것이든 잔여자아의 양도 문제와 관련된다. 잔여자아의 양도문제와 관계된 배우자와의 갈등은 그들이 결혼 이전에 그들의 대상과 공유했던 갈등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유사한 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절대대상으로부터 양도받지 못한 잔여자아를 위해 절대대상을 향한 구걸과 협박과 순응이 실패를 거두지 못했던 것처럼 과도기대상으로서 혹은 준절대대상으로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배우자를 향한 구걸과 협박과 순응이 실패를 거둘 수 있게 하는 결과를 안겨 주는 것이다.

절대대상과의 관계에서 언고자 하는 실패성은 자율성을 획득하는 것이고 과도기대상으로부터 구하고자 하는 것은 종속적 비자율적 분열적 상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절대대상으로서 또는 삶을 위한 영원한 에너지의 원천으로서 작용하게 될 양육자인 어머니로부터 수급받은 에너지가 어떠한 품질의 것이었느냐에 따라 추후의 성격특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영아자아의

1) A.Lincoln & M.Straus, Crime and the Family, Springfield, Ill, Charles C.Thomas Publisher, 1985, pp.5-23

2) B. Johnson & H. Morse, Injured Children and Their Parents, "Children" 15, 1968, pp.147-152

충동적 욕구(libidinal drives)와 대상자아의 흥분조절(excitement control) 수준의 상호관계가 우리들의 관심을 끈다. 다시 말해서 초기 양육기에 영아가 받은 어머니로부터의 에너지의 양과 질이 양호했는가 불량했는가 그리고 충분했는가 불충분했는가에 따라 영아기 이후의 자기감과 관련된 이미지 관리를 위한 에너지의 소비처와 소비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자기-대상이 밀착되어 있던 공생기와 심리적인 부화를 시도하는 제2의 탄생기인 격리개별화기의 에너지 관계를 알아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자아의 비정상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원인은 자기자아가 정상적으로 양육되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에서 오는 좌절감이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상에 의한 지속적인 잔여 자기자아의 양도 거부는 결국 좌절감을 심화시키고 심화된 좌절감은 수치심으로 이어지는 심리현상을 가지게 한다. 좌절감과 수치심의 근원은 사랑의 거부에 근원한다. 대상의 현실자아가 자기자아의 대상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고 양육을 포기하려 한다고 속단해 버림으로써 감당할 수 없는 좌절과 수치심을 경험하게 된다. 이때 경험하게 되는 좌절과 수치심을 자기(자녀)는 자기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에 의해 만들어진 느낌으로 받아 들인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상의 잘못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다.

성장과정상의 이러한 결정은 영아자아 임의에 의한 것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영아자아가 성장한 후에 가지게 될 성격특성으로 고정되어 분열적 표상을 형성하게 되고 분열적 표상은 도덕적 방어와 분열적 방어를 번갈아 가며 사용하게 되는 병리적 방어체계를 구축하게 한다.

자기자아는 과도기 대상의 생육력과 그 생육력에 의해 결정된 성격을 인지하는 마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맞는 아내가 된 여인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중에 자기-대상 표상이 회구하는, 함께 살아야 할 과도기대상으로서 자기의 생육력과 유사한 과거, 아니 생육력을 가진 대상을 선택한다. 행복한 어린시절을 보낸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과 같은 행복한 과거를 가진 사람을 과도기대상으로 선택하여 행복한 결혼생활을 꾸려 갈 것이고 불행한 과거를 가진 사람은 자기처럼 불행한 삶을 살아 온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여 불행한 일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3. 자녀의 병리적 성격특성

대상으로부터 초기에 받은 에너지의 질과 양이 나쁘고 부족했다면 나쁘고 부족한 에너지가 공급되는 즉시 영아는 이에 대한 부당함을 표현하고 좋고 풍부한 에너지의 보충을 위한 요구를 강하게 한다. 대상이 임의로 공급하는 에너지의 양과 질이 영아 자신의 시스템에 맞지 않기 때문임은 물론이고 나쁘고 부족한 에너지의 공급으로는 앞으로 소비해야 할 에너지의 질과 양으로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에너지의 질은 행동의 질과 연계되고 양은 인내력과 지구력 그리

고 추진력과 관계된다. 에너지를 받아 축적해야 하는 시간은 짧고 공급은 부족한 상황에서 영아의 마음은 다급하고 답답하다. 그러나 에너지를 공급하는 대상(양육자)의 태도는 영아의 다급함과 무관하거나 아니면 다급해 하는 영아의 태도를 오히려 신장하므로써 대상에게 더욱 강하게 매달려 보채게 한다. 이러한 대상의 태도는 영아로 하여금 더욱 더 공격적이고 자기파괴적이며 적대적인 행동을 자행하게 한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상호학대적인 관계를 조장하는 심리적 공황을 경험하게 한다. 공황에 처한 인간은 일반적으로 그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대방을 저해하는 이상행동을 할 수도 있다.

공황에 처한 인간은 공황이라는 무서운 정신적 공백을 만회하는 데만 급급하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한다. 자아가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상실한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일념 외에는 병리적으로 편향된 사고의 사이를 뚫고 들어갈 그 어떤 여유도 허용하지 않는다. 잔여자아를 양도받으려 하는 자기의 욕구와 양도하지 않으려 하는 대상의 소유욕 사이에는 생사를 초월하는 강인한 집착력이 내재되어 있다. 자기와 대상이 상호 다른 차원의 삶을 위한 절대적인 이유에서의 양도와 피양도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에 의한 잔여자아의 요구는 일정기간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자기의 자아가 성장하고 완성되는 시기까지 다시 말해서 출생후 4개월에서 36개월이 되는 기간까지만 자아의 완성을 위한 잔여자아의 양도를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아가 완성되는 시기인 생후 36개월 동안에 완벽하게 양도받지 못한 자기의 잔여자아를 대상이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36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그 잔여자아의 양도에 대한 요구의 강도가 약해질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잔여자아의 양도요구를 사실상 포기하고 양도받지 못한 잔여자아의 분량만큼 대상에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자기가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자율성을 포기하고 대상에게 의존적이 되었을 때 자기와 대상은 분열방어를 사용하는 상호적대적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의식의 세계에서는 서로가 괴롭고 힘든 관계속에 삶을 확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신내적 세계인 표상의 세계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관계를 통하여 얻게 되는 상호의존적 다행증을 경험한다.

이러한 심리내적 갈등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심리외적으로 표출되는 현상은 상호학대적 관계로 변형되어 부상되는 특성을 갖는다. 영아 혹은 자기가 심리내적으로 양육자인 대상(어머니)에게 순응하겠다고 결정한 그 결정의 내용은 대상(어머니)이 나빠서 아니면 대상(어머니)이 양육과정상에서 가지게 된 유기불안 혹은 경계선적 성격에 의해서 유발된 공허감을 자기(영아)가 송두리째 소유함으로써 향유하게 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항상 “너는 나쁘다.” 혹은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는 말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 대해 Fairbairn은 대상의 심리내적 욕구 혹은 음모를 인지하지 못하는 영아는 영아자기가 나쁘고 그리고 대상(어머

니)자아가 자기 때문에 못 살겠다는 느낌을 가질 수 밖에 없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그러한 말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믿는다³⁾고 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며 자란 자녀는 사랑을 받고 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자란 자녀 보다 훨씬 더 부모를 필요로 한다.”⁴⁾

고 했다.

자기의 일탈행동은 일종의 시위(demonstration)로서 제2차 격리개별화기인 10세에서 12세가 되는 시기에 제1차 격리개별화기인 18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 격리시키고 개별화시키지 않은 대상이 또 다시 격리개별화하는데 실패하게 만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대상이 자기의 격리개별화를 방해한 까닭이 자기로부터 괴롭힘을 받기 위한 것에 있었기 때문에 격리개별화의 실패로 인해 자기가 홀로 서지 못하고 대상에게 의지하여 대상을 괴롭히는 행동은 사실상 대상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행동, 자기 자신이 훨씬 더 괴로워 해야 하는 행동이 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자기의 일탈 행동 그 자체가 대상의 의식 수준에서는 대상을 괴롭히는 것으로 처리되지만 대상이 지각하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 결과적으로 마땅히 있어야 할 행동 혹은 기대하고 있는 행동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의 무의식 수준에서는 오히려 자기(자녀)의 일탈행동을 환영한다. 그러면서도 의식수준, 다시말해서 외견상으로는 괴로워 하는 양상을 보이는 “척하는 심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III. 치료적 접근

매를 때리고 맞는 인간관계에 참여하는 성격구조는 일반적으로 경계선적이다. 경계선 성격장애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함입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자기자아를 긍정적으로 완속시킬 수 있는 대상의 부재와 자기자아의 애정 통로를 차단한 다시 말해서 영아자녀의 애정표현을 거부한 대상의 기능적 모순에 의해 갖게 된 좌절에 원인하기 때문에 좌절에 의한 대상함입을 이해해야 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모든 정신질환을 위한 치료적 중재가 다 그렇지만 특히 경계선 성격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중재에 있어서는 자기와 대상을 감별할 수 있는 자아의 기능을 보강해 주는 것이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된다. 자기-대상 감별력의 상실과 자기-대상 용해 현상은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아의 통합을 저해하기 때문에 경계선적 분열과 유기불안을 야기시키게 됨으로써 자기는 대상에게 매달리고 대상은 자기에 매달리는

3) James s.Grotstein, Donald B.Rinsley, "Fairbairn and the Origins of Object Relations", New York:The Guilford Press, 1994, pp.63-64

4) Ibid., p.73

자기감이 없는 관계적 모순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통찰하게 해야 한다.

학대적 행위 자체가 무의식적 매달림이요 매달리게 하는 것은 또한 무의식 수준의 안정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학대자와 그의 희생자를 동시에 치료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학대자 혹은 매대리는 남편을 처음부터 치료에 개입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아내를 학대하는 남편들은 일반적으로 독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자신을 과대평가하며 주변상황을 지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내를 때리는 남편들은 품위와 자기감이 결여된 성격장애(일반적으로 경계선 중후군)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전형적인 경계선보다 조금은 더 혼란된 정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배를 때리고 맞는 부부는 대체로 본능적이다. 그리고 강한 공허감을 가지고 있으며 신뢰성이 없고 모든 일에 화끈하거나 냉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화끈할 때는 아내를 때리는 과정에서 “한번 죽어 보라.”하는 생각을 할 때와 아내를 때리고 난 직후에 “내가 언제 때렸느냐?”는 듯이 그럴듯한 언행으로 능숙하게 유혹적이고 과장된 언행을 할 때이다. 이러한 언행을 하는 그들의 내면세계에는 완벽하게 비어 있는 공허감과 깊고 지속적인 분노, 억제할 수 없는 충동 그리고 언젠가는 더 많은 복수를 하겠다는 적의가 숨어 있다.

그러나 그들 남편들의 의식 수준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안절부절 어찌할 바를 모르는 죄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죄의식이 그들로 하여금 사죄하게 하고 특별한 대우를 하게 하고 다시는 때리지 않겠다는 각오를 하게 한다. 도덕적 방어기제를 활성화하여 사용한다는 것이다.

남편들이 상습적으로 행하는 이러한 의식수준의 언행은 극히 한시적이다. 자기의 폭행에 대해 죄스럽게 생각하고 자기에게 폭행을 당한 아내를 미화하고 이제부터는 폭행이 없는 화목한 삶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듯한 언행을 하다가 이러한 언행을 하게 한 도덕적 방어가 기세를 잃게 되면 이·삼일이 멀다하고 곧 분열적 방어를 활성화시켜 다시 아내를 미워하고 하찮은 이유나 아니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혹은 아내를 때리고 난 후에 사죄하고 최선을 다해 잘 해 주려 는 듯한 남편자기의 언행에 시큰둥한 반응밖에 보이지 않았던 아내를 두려워했던 마음을 되살려 혹은 그 동안 아내가 자기를 잘 돌보아 주지 않았던 것에 대한 보복행위로서 아내를 때리는 일을 다시 반복하게 된다. 이는 곧 남편자기가 활성화시킨 분열방어에 의해 아내를 적대시하고 자기자신을 거부하는 일련의 자기학대적 언행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때리는 남편과 맞는 아내는 그들이 어린시절에 내재화한 나쁜대상에게 완벽하게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상호 호소하는 무의식적 내용과 이 세상에서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오직 하나 뿐인 절대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에 근거한다.

학대자(남편)와 피학대자(아내)는 사실상 그 역할을 서로 바꾸어 가며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좋고 누가 나쁘다고 할 수 없으며 다만 흥분시키는 느낌과 좌절하는 느낌을 긍정적인 합입을 통해 대치시켜 줄 수 있는 확실성과 관심 그리고 성실 등의 지지적 체계를 제공해 주는 것만이 치료의 대처전략이 된다.

자아구조의 통합은 분열방어의 사용을 줄이게 하고 확대하는 것으로부터 혹은 확대를 받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에너지를 비축하게 한다. 분열은 자기-대상을 좋고 나쁜 존재로 이분하여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고 통합은 분열된 자기-대상 표상을 단일화하는 것이다. 상담가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들이 합입되면 그때부터 자신의 분열방어를 이해하고 관대한 느낌으로 그 분열방어를 수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상담가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피상담자의 문제에 대한 상담가의 정성이 갖든 이해와 수용 그리고 지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 된다.

IV. 결 론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자녀로 하여금 좋은 부모상을 합입할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이고 좋은 자녀가 되는 것은 좋은 자녀로서 자기 대상을 감별하고 자율성을 획득하여 통합된 인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다.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은 부모가 부부로서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며 자녀가 자녀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은 부모의 행동을 자기 것으로 익혀 부모가 생활하고 있는 삶의 패턴을 그대로 전수받는 것이다. 부모의 부부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병리적으로 이상화하는 도덕적 방어와 그리고 상대방을 평가절하하고 저주하는 분열적 방어를 하지 않는 것이다. 어머니는 부인으로서 남편인 아버지에게 언제나 따뜻하고 부드러운 여성으로서 대리모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해야 할 일을 성실히 가능하면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이고 아버지는 남편으로서 부인을 아끼고 사랑하며 가족의 경제적 여건을 풍요롭게 조성해 주는 것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만일 부모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부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할 때 그 밑에서 자란 자녀의 사고와 행동은 완벽에 가까운 모양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부모가 부부로서 구축해야 할 가정의 화목한 분위기를 외면하고 서로 때리고 맞는 관계속에 마치 때리고 맞기 위해서 서로 만나 결혼을 한 것과 같은 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면서 괴로워 하는 것은 부모의 부모(조부모)들의 분열된 자기 대상표상에 의해서 양육된 성장과정상의 불행했던 경험들이 부모로 하여금 상호확대적인 부부생활을 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부부체계를 가진 부모들의 분열된 성격특성의 영향을 받은 자녀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일탈행위만을 일삼는 원인 또한 그들의 조부모에 의해서 전수된 부모의 행동 양상을 전수받은

것 때문이다.

성격상의 분열 다시 말해서 양도받아야 할 자기 잔여자아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부모 자녀관계는 상호요구적이고 비난적이며 그러면서도 의존적인 병리적 관계를 유지하게 한다. 이러한 관계는 일반적으로 세월과 더불어 바람직한 형태로 재구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 통념상의 기대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성장과정 특히 자아가 완성되어야 할 시기에 자아완성의 기회를 놓친 사람의 성격 특성은 그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칠 때까지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가의 개입이 없이는 원래의 성격 특성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나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생활과정에서 습득한 병리적 심리현상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어 상담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육적인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상담전문가는 명실공히 이를 증지할 수 있는 전문적 이론과 그 이론에서 창출된 효율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현실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치료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을 기회가 적거나 아니면 거의 없고 상담분야에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전문성 또한 심히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대책이 시급하게 요구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